

대학 생활



한복체험



김치만들기



태권도



손거울만들기



예절교육



한국춤체조



민속촌



한국노래배우기



요리대회

통권 제13호

우송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 안녕

## An-nyeong

2010 December

### 교수수필

- 한국어교육원 교수 강지영

### 인터뷰

- 졸업생 인터뷰
- 우송대 졸업생 05학번 주찬
- 재학생 인터뷰

### 인턴생활

- 호텔외식경영학과 주아남
- 국제경영학과 신정

우송외국인 동문회 | 중국 선생님들 인사말

우송외국인 한국어말하기 대회 최우수상

-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왕녕, 호옥문

느낌과 생각

새 소식

대학생활



우송한국어교육원

WOOSONG UNIVERSITY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 2010 December

통권 제13호

## CONTENTS

- P3 교수수필 · 지금 행복한가요?
- P4 인 터 뷰 · 졸업생 인터뷰 · 재학생 인터뷰
- P6 인턴생활
- P7 우송외국인 동문회 | 중국 선생님들 인사말
- P8 우송외국인 한국어말하기 대회 · 최우수상
- P10 느낌과 생각
- P18 새 소식



발행인 이근태  
편집인 전연희  
편집지도교수 이주리  
편집장 최아  
편집위원 심양, 팜티 김로안,  
고징강, 응몽몽, 조약계  
발행일 2010. 12. 6

# 지금 행복한가요?

강 지 영

한국어교육원 교수



얼마 전 ‘올바른 삶’이란 제목으로 ‘사람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읽기 수업이 있었다. 다소 지루한 내용에 대답을 찾기 어려운 주제라서 학생들의 반응이 걱정되었는데 정확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수줍게 발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올바른 삶’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말하던 중, 반 학생 하나가 “선생님, 올바른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되물었더니, “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 안하고 자신이 행복하면 바른 삶이에요.”

비록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올바른 삶에 대해 이렇게 정의내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학생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걸까?’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어 선생님이로서의 첫 수업을 아직도 기억한다. ‘컴퓨터 활용 한국어’라는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초보 선생님이 맡기에는 부담이 큰 수업이었다. 그 수업을 위해 며칠을 준비하고도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가 버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그 때, 나는 부담 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벅찼다.

한국어 선생님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비록 첫 수업 때와는 다른 감정이지만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때의 감정은 여전히 늘 새롭다.

아직 아이를 낳아 키워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아 키운다면 이런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혹여 아프기라도 하면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는 일이라도 생기면 같이 흥분하며 속상해 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한국생활과 친구관계가 서툴러 힘들어 하면 진심으로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엄마의 마음!

한국어 선생님이로서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짝사랑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학생들로 인하여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더없는 행복함을 안겨 주었다.

사실 최근에 이러한 행복함과 첫 한국어 수업의 벅차고 설레던 마음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그 설렘을 일깨워 준 반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나는 스스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이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 “졸업 후 나의 첫 직장 생활”

2009년 5월 눈앞에 다가온 대학 졸업이라는 단어는 나를 초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회사에 취직하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던 나의 미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먼저 이력서를 썼습니다.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한국어 이력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개성있고 자신감 있는 이력서 작성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충실한 대학생활을 보낸 나는 한국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군데서 면접을 보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과 가까운 남경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6월 초 드디어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졸업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짐을 쌌습니다. 한국에서 참 열심히 살았구나 싶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섭섭함과 아쉬움이 가슴에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방학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뭐지!’ 그동안 한국 생활에 정이 들었었나 봐요.

조금의 아쉬움을 털고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습니다. 특히 떠나기 전날 친구와 같이 본 개봉영화(트랜스포머3)가 지금도 뇌리에 추억으로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순조롭게 2차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습니다. 나의 첫 직장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이라서 뭘 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가르쳐,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가운데 반드시 자신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孔子曰: 三人行, 必有我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빨리 채고 재치있게 행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칼 퇴근’과 ‘여유로움’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이 일에 모든 정력을 기울이고 밤새도록 코피 터질 정도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 봤더니 “국가가 작아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한국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 사람들에게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을 1년쯤 다녔지만 부족한 점과 배울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 믿으십시오.**



INTERVIEW \_ 주 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 졸업생 05학번 주찬이라고 합니다. 국제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남경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KTX로 꿈을 이루리라!



영어학과 허가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생각을 바꾼 적이 있으세요? 어느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일이 생겼다.

그분들은 깜짝 놀랐고 나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보다 한국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친절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다시 KTX로 부산에 돌아갔다.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전에는 철도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철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철도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우리 고향에서도 철도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나는 한국철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철도사업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철도 대학원에 다녀 철도방면에 내 꿈을 펼칠 지도 모를 일이다!

2010년 10월 27일 나는 여러 나라에서 온 8명의 유학생들과 같이 한국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식에 참가하러 갔다. 아침 5시에 일어나도 하나도 졸리지 않고 오히려 원기가 왕성했다. 아마 한국에 온 후 처음 유학생 대표로 행사를 참가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6시 30분 정장을 입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으로 떠났다.

3시간 후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부산역 안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이 우리에게 모아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얼굴은 모두 국적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축제표찰을 달고 개통식 현장에 들어갔다. 공연을 보고 나서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개식선언과 국민의례였다. 나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국민의례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민족 응집력과 자부심을 깊게 느끼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 관원들은 축사를 하고 유공자에게 포상했다. 무대에서 있는 유공자들을 보고 나도 모국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바로 개통기념열차를 시승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아직 KTX를 타 본 적이 없었다. 이번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것이 될 것 같다. 우리는 부산에서 울산을 지나 신경주역까지 갔다. 열차를 탔더니 자리가 넓고 편할 뿐만 아니라 시설도 완벽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 것 같았다. 우리는 신경주역에서 많은 한국 관원들 및 귀빈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나는 국토해양부 요원 및 부산 정부 요원과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다. 요원들은 내가 한국말을 할 줄 모를까봐 중국말로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나는 한국말로 유창하게 대답했다.

## ★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름 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몰라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한국 음식이 아주 매워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불편했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한국어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문화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먹을수록 잘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나에게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고맙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국제경영학과 자흐



인턴십을 하면서...

호텔외식경영학과  
주 아 남

한국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 여름 방학에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외식경영학을 공부합니다. 우리 과 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 모두 인턴십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인턴십 과정이 있었습니다. 솔브릿지 솔포레스에서 인턴십 과정을 했습니다. 저에게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손님과 만나야 하고 수건과 운동복을 개고 모든 물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 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한국 사람들도 화가 났었겠죠?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저는 언제나 파김치가 되어 버려서 자느라고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어 실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의 일상과는 다른 경험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 둔 나는 중국에 있는 수출입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턴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회사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부분들을 직접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턴 생활이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생활과는 다르게 모든 것에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일 업무를 다 하지 못한 일은 직원으로서 야근을 해서라도 완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교를 벗어나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직업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하고 열심히 업무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면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동료들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과 자신이 좋은 동료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간의 화합과 이해가 있어야 직장 생활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사회생활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학력보다는 업무 능력과 교제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력은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랫동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인턴생활

국제경영학과  
신 정

우송 외국인 동문회



우송 외국인 동문회 회장 방 서

동문회를 통해 동문들의 취업 소개 및 향후 우송과 동문들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학부모님 간담회가 열렸고 동창회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송 외국인 동문회 회장 방서입니다. 저는 "우송의 발전이 동문회의 발전이요, 동문회의 발전이 우송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도와 주고"의 정신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여 글로벌 인재로서 우수한 우송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결성된 동문회인만큼 우송 동문들 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모임의 공간이 되고 자랑스러운 활약상을 기뻐하며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송 외국인 동문회를 지켜봐 주시고 아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며...



2010년 6월 우송 외국인 동문회



2010년 1월 우송 외국인 동문회

- 2010년 10월 | 동문 "대학생활의 소중한 사진과 동영상" 수집
- 2010년 11월 | "우송 영원히 마음에 있다" 퀴즈와 동문회 글 모집
- 2011년 1월 | 우송 외국인 동문회 정기총회
- 2011년 4월 | "동문의 발자취를 찾다" 동문의 생활이나 취업현장 사진 수집
- 2011년 5월 | "마음의 기대, 새로운 인생" 교육활동
- 2011년 6월 | "우송외국인동문회 발전기금" 기부금 모집
- 2011년 7월 | 우송외국인동문회 각 지부 모임

중국 선생님들 인사말



- ★ 한번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요. - 강은혜 선생님
- ★ 아는 것이 힘이다.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즐기세요. - 한은수 선생님
- ★ 08소프트 학생들 잘 지내요?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08소프트 화이팅! - 박진희 선생님
- ★ 선생님들은 믿는다. 힘차게 달려라! - 여설 선생님
- ★ 07.08학생들 모두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건강해요. 사랑합니다. - 김윤미 선생님
- ★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 웃으면서 다시 만나리, 사랑합니다! - 최호석 선생님
- ★ 아무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 삶은 그냥 끝내 버릴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 내시길 바랍니다. - 남경 특수대 허유진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무 살의 멋진 비상을 위해 한국에 가신 여러분! 힘든 유학 생활동안 초심을 잃지 말고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스무 살 청춘들이여, 파이팅!!!

- 소주대에서 김정선 선생님





## 우송외국인 한국어말하기 대회 최우수상

한국언어문화전공

왕녕, 호옥문



### “우리 모두가 짐승”

- A** 오늘 저희는 중국과 한국의 토템을 비교하면서 한국문화의 한 특징을 알아보려고 해요. 중국에 제악절이라는 날의 유래를 알려 드릴게요. 옛날에 아주 사나운 악마가 있었대요. 악마는 매일 마을에 와서 소와 말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아니’ 라고 하는 똑똑한 소녀가 있었어요.
- B** 아니는 마을의 현 철 냄비들을 모아서 대장장이한테 부탁했어요. 커다란 철공 세 개를 만들어 달라고요.
- A** 철공이 완성되자 아니는 그것을 가지고 악마가 나오는 물가로 갔어요.
- B** 악마가 아니를 보곤 확 잡아먹으려다가 문득 옆에 있는 철공을 봤어요.
- 악마** 야, 야, 이게 뭐야? 네 거니?
- 아니** 네, 저는 매일 이 철공으로 우리 아빠랑 같이 놀아요.~
- 악마** 그래? 어떻게 노는 건데? 내게도 빨리 알려줘 봐!
- 아니** 간단해요. 첫 번째 공은 하늘 높이 던져서 발로 받아야 하고, 두 번째 공은 무릎으로 받고, 세 번째 공은 머리로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 악마** 그걸 누가 못하니? 이래도 난 악마축구단의 대표 선수란 말이야. 기다려 봐... (작은 공을 던져 발로 받으면서) 아, 아파! 흥! 이걸 너무 작아, 이걸로 해야겠다~... (더 큰 공을 던지고 무릎으로 받는다)... 아~~~, 아파! 피가 난다~
- 악마** 가만있어 봐. 내가 제일 큰 걸로 하는 걸 보여 줄 게. 봐, 봐. ... (제일 큰 공을 머리로 받다가 악마는 껍 소리 내며 쓰러져 죽는다.)
- A**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 악마가 죽은 날이 7월 13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날을 ‘제악절’ 이라고 했대요.
- B**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며 곰 같은 동물을 아주 좋게 여기는 것 같아요.
- A** 네, 그래서 한국의 개천절도 동물과 상관이 있어요.
- B** 옛날에 환웅 어른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근처 살던 곰과 호랑이가 핸드폰으로 들었는지 재빨리 알게 됐어요.
- A** 곰과 호랑이는 사람처럼 쇼핑도 하고 피자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싶어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 B**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참을 수 없었어요.
- 호랑이** 안 되겠어. 난 그냥 토끼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와! 밖에 나오니 진짜 살 것 같아. 나는 백수의 왕자다! 파이팅!
- A** 그러나 곰은 100일 동안 참아 여자가 되었어요. 콩그레쥬레션, 콩그레쥬레션!
- 곰** 어머니! 내가 여자가 됐네. 내가 봐도 너무 이뻐, 환웅 아저씨부터 꼬셔 볼까!
- 환웅**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 네가 이렇게 예쁜 여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어머니? 나 아직 총각인데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래? 애간장 태우지 말고 빨리 오케이 해.
- 곰** 안돼요. 먼저 한국어학과 학과장님께 물어봐야 한단 말예요.
- 환웅** 알았어, 이번 기회에 내가 우송대학에 비행기를 한 대 사 줄게. 중국 학생들이 중국에 오갈 때 공짜로 마음대로 사용해라.
- B** 결국 이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분이 바로 단군이셔요.
- A** 이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특히 곰과 호랑이를 영물(靈物)로 여겨요.
- B** 이런 토템은 나라마다 특징이 있지요. 토템의 차이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 A** 그럼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그 나라 말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 | 2010 제5회 우수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

## 누가 누가 한국어를 가장 잘하나?

2010년 11월 5일(금) 우송도서관정보센터 강당에서 제5회 우수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총 47명의 참가자 중 15팀이 경합을 벌였다. 참가자 전원은 한국에 온 지 2년여의 유학생들로 다양한 주제와 제목으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b>최 우수 상</b>	호욱문(한국어학 3년), 왕녕(한국어학 4년)
<b>우수상(공동)</b>	오소(국제경영 3년), 팽뢰(국제경영 1년)
<b>장려상(공동)</b>	손강(한국어학 3년), 감도원(국제경영 3년), 심양(국제경영 3년)
<b>격려상(공동)</b>	하성지(컴퓨터디자인 4년), 왕동승(컴퓨터정보 4년)
<b>인 기 상</b>	타이라(국제대 BBA)
<b>특 별 상</b>	레녹차미(국제경영 4년), 허가개(영어학과 4학년)



## IN KOREA

국제경영학과 | 장 어 성



2009년 9월, 가깝지만 낯선 나라 한국에 왔다. 약간의 불안함과 동시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한국에는 나 말고도 이미 많은 중국친구들이 유학을 와 있었다. 특히 내가 다닐 우송대학교에는 중국과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아서 적응하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금방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라서 들뜬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첫 수업을 들었는데 내 생각보다 한국어는 조금 더 어려웠다. 발음이며, 받침이며,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한국어 공부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국 친구들이 내 공부를 도와줬고, 나는 한국친구들에게 중국어 공부를 도와주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기숙사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나는 하루 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한다.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다. 다른 땅 다른 나라에서 온 나를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한국생활 하는데 힘들어 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인들에게 나는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다. 정이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한국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따뜻함을 느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에 많이 적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부딪히고 노력해서 후회 없는 유학생활을 하고 싶다.



## 나의 아버지

국제경영학과 | 정 왕

나는 아버지에 대해 자랑하는 글을 쓴 적이 없다. 어린 시절에 날 키우고 귀여워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뿐이라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자주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라고 하실 때마다 나는 항상 “우리 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날 깨우고 아침밥도 준비해 주시고, 수업 끝나면 항상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날 기다리고 집으로 데려다 주시고...”라고 썼다. 사실은 그런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다. 머리 속에 아버지는 항상 바쁘고 말없고 엄숙하신 이미지만 떠오른다. 길거리에 지나다가 다른 애들이 아빠와 친밀한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밍기도 했다. 한국 유학 중 방학이 되어 집에 일찍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엄마한테 계절학기 받아야 하니까 늦게 집에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집으로 전화했다. 보라카이에서 즐겁게 놀다가 어느날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켰다. QQ상에 엄마의 메시지가 쭉~~~컴퓨터 스크린에 떴다. “너 어디 있는 거니?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네가 지금 한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다고 한다. 딸아 제발 안전하게 집에 와라. 집에 오면 절대 잘 잘못을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돌아와!” “정왕아, 네 아빠가 너의 소식을 듣고 혈압이 높아져서 입원까지 하셨어... 네가 방학때 집에 온다고 하니까 아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자도 한 박스 사왔어... 그런데 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니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겠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보는 순간, 나는 나를 지탱하는 모든 것에 균열을 느꼈다. 너무 무섭고 걱정스러워 울면서 떨었다. 친구한테 인사도 안 하고 빨리 택시 잡고 공항에 가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바꿨다. 하루 종일 걸려서 집에 도착한 후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다. 침대에 누워 있던 아버지는 날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안도의 한숨만 쉬셨다. 갑자기 아빠의 흰머리가 또 생긴 것 같았다. 아버지의 표정은 한순간 편안하고 인자하신 얼굴로 바뀌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침대로 가서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라고만 했다.



## 남이섬 여행

국제경영학과 | 사랑



얼마 전에 친구들과 같이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던 남이섬에 갔어요. 출발할 때는 모두들 흥분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요. 다들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버스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다들 푹푹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 후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앞으로 조금 전진한 후에 한참동안 서 있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우리들을 태운 한 마리 용 같은 관광버스 대열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남이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안내원은 오후 2시 반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침도 굶고 왔기 때문에 무척 배가 고팠어요. 다들 불만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한참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남이섬에 도착했어요. 모두들 정말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내려서 점심을 먹었어요. 식은 밥으로 먹는 점심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꿀맛이 따로 없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친구들과 같이 남이섬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나뭇잎들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낙엽이 뿌리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늦가을이라 해는 일찍 저물었어요. 익숙하지 못한 장소에서 결국 드라마 촬영지는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아쉬움이 컸어요.

이번 여행은 생각지 못한 교통 체증 때문에 구경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지만 오랜 시간 버스를 타보는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다음에 꼭 다시 가보고 싶어요. 나의 올가을이 못다한 여행의 아쉬움을 남기고 깊어갑니다.

## 보령머드축제를 체험하다.

국제경영학과 | 이 선



여름방학 때 친구랑 같이 대전해수욕장에 갔다. 마침 제13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렸다. 그 날 거기에 가서 해수욕 및 머드체험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다. 이번이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본 것이다. 바다를 봐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형용할 수 없다. 그날 참 많이도 더웠지만 사람도 참 많이 왔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한손에 맥주를 들고 파도를 기다리던 외국인들, 정말 누구도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분위기였다. 또한 비키니를 입은 여자도 굉장히 많았다. 역시 국제적인 축제였다. 우리는 거기에서 온 몸에 머드칠을 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튜브를 빌려 바다로 들어갔다. 튜브에 매달려 파도를 타니 정말 재미있었다. 돈을 지불하고 튜브를 빌렸는데 시간을 제한해서 좀 아까웠지만 한 시간 노는 것이 딱 좋을 듯했다.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이다. 좀 쉬다가 우리는 머드광장에 갔다. 머드광장에서 진흙을 온 몸에 바르고 다니는 사람의 모양을 보고 나도 머드 튜브에 빠졌다. 머드에 흠뻑 빠져서 뒹굴고 즐기다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 참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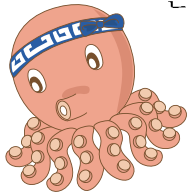
그렇게 신나게 놀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렇지만 그날 정말 신나고 즐거운 하루였다. 햇볕에 많이 탔지만 앞으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 주꾸미

영어학과 | 누 싸 이 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어하고 한국어 두 개 다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많습니다. 제 고향인 말레이시아에도 매운 음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가끔 매운 음식을 먹습니다. 어느 날 같이 공부하는 한국 친구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매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그 식당은 인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삼십분을 기다려 주꾸미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꾸미에는 양파가 많았고 정말 빨갛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주꾸미를 먹었습니다. 그 맛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먹은 매운 맛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주꾸미는 ‘매운 맛과 단 맛’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꾸미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꾸미를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식당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시고 제가 가면 조금 더 많이 주십니다.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주꾸미를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 이 가을 친한 친구에게 사랑이....

국제경영학과 | 부 아 티 민 트

남에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풍부한 감정과 꺼지지 않는 열정, 그리고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저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는 행복한 사람이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절망과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녀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천성이 부지런하고 밝은 영혼을 가진 순수한 사람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어요. 그런 그녀에게 어느날 작은 사랑이 찾아왔어요. 사랑의 로맨스는 본인의 성격과 열정으로는 안 되나 봅니다. 두 번의 아픈 이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에 대해 다시 심장이 뛰기 어려운가 봐요. 쉽게 사랑을 찾지 못해요. 용기도 없어졌나 봐요.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은 새로운 사랑을 해 보라고 하지만 아직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친구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인생에서 사랑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를 사랑해 주는 사랑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항상 웃으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나는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남에게는 특별한 그녀, 내가 슬플 때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남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그녀에게 지금 난, 큰 희망과 소원을 빌어 봅니다.

언젠가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날 거라고.  
친구야! 아자! 아자! 파이팅



## 아이스크림 세일

국제경영학과 | 공 의 로

그 날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었다. 나는 친구랑 같이 쇼핑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세일 광고를 봤다. 그 광고에서는 6시 이후에 아이스크림을 50% 할인한다고 써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싸다면 진짜 살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와 제일 큰 통으로 샀다. 우리 둘은 그 아이스크림이 먹을수록 맛있어서 한 시간 만에 1kg의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치웠다. 먹을 때 기분은 참 좋았다. 그때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 밤에 생각지도 않은 나쁜 일이 생겼다. 나는 배탈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잠을 잘 때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밖이 어두워서 무서웠다.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들었던 귀신이야기도 생각났다. 나는 더 무서워졌다. 이제 내 눈은 천장만 말뚱말뚱 보면서 그냥 참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해가 떴다. 매일 보는 태양이었지만 그날의 태양은 나의 '구원자' 였던 것이다. 나는 해를 보자마자 화장실에 갔다. 다음 날 친구에게 "야, 어제 밤에 배 안 아팠니?" 이렇게 물어봤다. 내 친구는 "나는 괜찮았는데"라고 했다. 나는 순간 생각했다. '아~~진짜 건강한 배다!'



## 빼빼로 데이 11월 11일 아시나요?

국제경영학과 | 위 영



“11월 11일”, 혹시 여러분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이 날을 빼빼로 데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이 날을 “솔로의 날”이라고 해요. 11월 11일 솔로의 날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솔로인 것을 자랑하고 신나게 이 날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애인이랑 헤어지고 마음이 아파서 취하도록 술을 많이 마셔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만 애인을 못 찾아서 혼자 말없이 울지도 몰라요. “솔로” 이 단어는 이 날 제일 민감한 인기 화제어가 될 거예요. 중국의 “솔로의 날”에 비해 한국의 빼빼로 데이는 완전히 달라요. 최근 가게마다 빼빼로를 팔고 있는 것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빼빼로 데이는 1994년 11월 11일에 부산에 있는 학교의 여중고생들이 11월 11일 날 친구에게 우정을 전하기 위해, “키가 크고 날씬해지고 예뻐지자”라는 의미에서 빼빼로를 선물하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빼빼로 데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기념일이 되었는데요. 11월 11일에는 빼빼로가 여러분의 사랑과 우정을 대신 표현해 줄 거예요. 빼빼로를 통해 친구사이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애인들은 사랑의 충실을 증명하고, 가족들은 혈육간의

정을 나눕니다. 물론 청춘남녀들이 서로 빼빼로를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로맨틱하겠지요. 그래서 빼빼로 데이는 한국에서 발렌타인데이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특별한 날에 친구나 애인이랑 같이 지낼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큰 행복이겠지요? 이 추운 겨울에 사랑과 우정, 감사의 마음까지 아낌없이 표현해 보세요. 빼빼로 데이가 다가오면 애인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어딘가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HAPPY PEPER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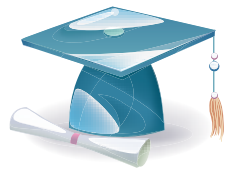
## 졸업하기전서.....

국제경영학과 | 주일정



졸업, 이 시간이 예상치 못하게 빨리 왔다. 졸업 준비를 하는 친구, 진학 준비를 하는 친구, 취직 준비를 하는 친구.... 다들 바쁘고 긴장되는 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별의 두각이 보이는 것 같다. 머리와 마음속에는 한국에 온 첫날이 생생한데... 8월 말의 무더운 오후였다. 비래동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친구 네 명이 걸어서 가면서 거리 구경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더위는 그때 친구가 되었다. 길에서는 모든 것이 궁금해서 눈이 너무나 바빴다. 한국어 교육원 교수님들은 언어연수때부터 우리들의 손을 잡고 한국생활에 관심을 주셨다. 조금씩 우리들한테는 가족같은 따뜻한 존재가 되었다. 물론 전공 교수님들도 많이 배려해 주셨다. 원어민 교수님들도 다 친절한 분들이셨다. 남아프리카 교수님은 월드컵 때 우리가 가보고 싶다고 하면 비행기표까지 다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다. 정말 감동 받았다. 만약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고 하면 "바가지를 쓰면 전화줘. 도와 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뛰어갈게."라는 한국 친구의 말이다. 그 때 정말 한국말이 제일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했다. 한국 친구가 설렁탕을 먹는 표정, 물러 코스터 세 번째 같이 타 주는 장면... 멘토링이 이렇게 내게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중국에 찾아오면 똑같이 놀거리를 많이 찾아 주고 싶다. 가기 전에 우리 건배 한번 더 할까? 이제 떠나야겠다. 떠나기가 아쉽다. 우리는 여기 한국 우송대학교에서 젊음의 흔적을 남겼다. 여기서 큰 꿈을 하나씩 실현하게 됐다. 이제 모든 추억을 보물같이 챙기시다.

우송이 "우송인"의 당당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줬고 더 밝은 미래로 우리들을 보내고 있다.



## 나의 한국 생활 적응기

철도경영학과 | 향위

오늘은 10월 24일인데 기숙사 일 층에 있는 자습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거의 두 달이 다 됐지만 한국어로 글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8월 27일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을 나올 때 비가 많이 내리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마음도 따라 쓸쓸하기도 했고 흥분도 되었습니다. 새 나라 새 환경에서의 시작이구나! 친구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떠난다고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녔는데 지금 낯선 나라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이국!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유학생회에서 언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주대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는 《초급 1》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취미로 배워서 수준이 좀 낮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실력도 많이 늘었고 따라서 한국 생활도 재미있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파란 하늘에 있는 하얀 구름을 보면서 "경치가 아름답구나!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왜 한국에 왔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한국에 온 친구들을 빼면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활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첫 관문이라는 MT를 갔습니다. 한국친구들을 새로 사귀고 수업도 함께 들었는데 이렇게 친절한 줄 몰랐습니다. 또 친구들이랑 민속촌을 다녀온 후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동안 많은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한국어가 어렵고 물가도 비싸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한국영화 <세종대왕>

국제경영학과 | 송 문 문

내가 보았던 한국영화 중에서 <세종대왕>이란 영화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다는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에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외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켰다. 특히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을 만들었다.



나에게 이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배우고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글자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주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모양도 무척 아름답다. 또한 한글은 다른 나라 문자와 달리 만들어진 배경도 특이하다. 즉,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분명한 창제 목표를 가지고 만든 글자라는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글자를 배우고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세종대왕이 보통 사람들도 쉽고 편하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것이다. 진정으로 좋은 문자는 머리가 좋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일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내 자신이 정말로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런 큰 생각을 하고 이런 글자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은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앞으로 세종대왕 같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싶다.



## 한국 생활

컴퓨터정보학과 | 싡 이음솟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싡 이음솟이라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높은 건물도 많고 단풍도 정말 아름다워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어를 배웠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선생님, 친구들이 아주 친절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음식이 입에 맞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날씬한 저는 옷을 많이 입어서 뚱뚱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눈을 처음 보았습니다.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눈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음과 눈에만 담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존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말입니다. 한국의 교통수단은 아주 편리한데 어느 날 시내에 가야 하는데 버스 안내 방송을 잘 못 알아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는 장소까지 걸어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지금은 친구들도 많아졌고 축구 동아리를 신청해서 주말에는 축구를 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행복한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한국에 있을 겁니다. 후회 없는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오면 꼭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맛있는 캄보디아음식과 과일도 사 주고 유명한 여행지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 어머니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

스포츠건강관리학부 | 주 옥



만약에 누가 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주저없이 “엄마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농촌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으셨고 성공하셨다. 어머니 친구분께서는 어머니의 성공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처음 본 남자와 결혼한 후에 용감하게 혼자 도시로 나와서 가난에서 벗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저의 한국 유학을 결심하신 것이라고 하신다. 저는 저희 고향에서 유학을 한 세 명의 사람 중에 하나다. 저희 집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너무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쉽사리 유학을 보내지는 않았다. 나는 어릴 때 넉넉하지 않아서 생활이 힘들었다. 아버지는 형제 중에서 아주 성실하고 마음도 착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제일 잘 하셨다. 예전에 공부만 많이 하셔서 그런지 농사일을 잘 못하신다. 생각도 평생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시니까 농사일은 어머니께서 하시구 나!”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할아버지의 강한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딸만 둘을 낳아서 어머니를 싫어하셨던 것이었다. 심지어 밭에 나가실 때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기도 하셨다.

그러시던 어머니께서 올해 3월 28일 나를 버려두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 어머니도 더 이상 우리를 볼 기회가 없으시니 하늘나라에서도 슬퍼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쓴다. “엄마! 저는 지금 씩씩하게 잘 있으니깐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저를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새 세상에서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용감하고 씩씩하니깐요. 영원히 사랑해요! 엄마!”



## 마음의 변화

뷰티디자인과 | 이유나

오래 전부터 한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알고 싶었죠.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심과 기대를 안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신기하고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막연한 동일감은 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몰랐던 나는 호기심이 생겨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지고 다녔고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텅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언어부터 먼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부족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따스한 햇볕에 노곤하게 잠이 오고 피곤함을 느낄 때면 향기로운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잠을 쫓곤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요즘 나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아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 한국어를 열심히...

철도전기 정보통신학부 | 응징호



제 고향은 소주인데 약 한 달 전에 대전에 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없던 나는 11월 5일 금요일을 계기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원에서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수업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가기 싫었지만 우리 학교 친구가 참가한다고 해서 응원하러 갔습니다.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친구들은 한국말을 무척 잘 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발음했습니다. 5분 정도 발표를 했고 내용도 재미있었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나는 친구의 통역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주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기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문화와 언어를 즐기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무주 기행

관광컨벤션학과  
조약계



10월28일에 'Leadship Confren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10'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유학생회원들은 전북에 있는 무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한국에 있는 전 세계 63개의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만났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단풍이 어린 아이 얼굴처럼 빨간 무주의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무주에 도착하고 나서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한국인과 유학생들이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에 있는 언니들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낯설어서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세계 환경"과 "IT 사업"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강연을 듣는 것이 조금 심심하고 피곤했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강연을 들은 후 친구들과 함께 한 게임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놀이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더 친해 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의 따사로운 햇살이 있고 함께하는 세계 각 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스키장 옆에 있는 잔디밭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캄보디아, 인디아, 미국,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 등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한 "수건 놀이"가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밤에 있는 할로윈 가면 무도회에서 유학생회 친구가 노래를 불렀고 춤도 쳤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에 갔고 책에서 배웠던 그 유명한 전주비빔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역시 맛있었습니다. 이런 초등학교의 금전 출납부와 같은 제 글이 조금 유치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 3박 4일 동안 그들과 같이 보냈던 시간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학교에 왔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했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 한국 유학 생활이 더 풍부하게 되면서 더불어 한국도 점점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제9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연극 한마당(고려대 주최)에서 대상 수상!

● 한국어 대사 전달 가장 우수, 연기력 또한 탁월하다고 극찬을 받다.

2010년 11월 10일 고려대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관광공사가 후원으로 열린 '제9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연극 한마당' 대회에서 우송대학교는 우수의 대학들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 대회에서 우송대학교는 배우들의 각기 인물에 맞는 개성적인 연기와 짜임새 있는 극 진행으로 관객의 큰 호응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냈다. 이날 심사의 최고 기준은 '한국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여 내용 전달을 잘하나'였다. 그런데 영화배우 이병준(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외래교수) 씨는 심사평에서 "우송대학교의 연극은 한국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연기가 정말 전문가의 지도를 받지 않았나 의심될 정도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인기상을 받은 이맘(방글라데시, 우송국제대)의 연기는 욕심이 난다며 그의 독특한 웃음소리를 단상 위에서 흉내 내기도 했다. 우송대학교는 이날 대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상패, 상금을 받았다. <대회에 출전한 '공쥐팔쥐' 연극은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이강록 교수가 지도하고, 황리원, 방서, 전진봉, 오소, 왕녕, 민학, 포우, 이맘, 서미르, 안티, 장예범, 노영치, 서도, 공위, 감도원 등이 출연하였다.>



## 다문화 가정 및 해외유학생 요리경연대회

● 자국의 요리와 한국의 요리 솜씨를 뽐내 보요!

지난 11월 12일(금) 우송대학교와 KBS대전방송총국이 주최하는 '다문화 가정 및 해외유학생 요리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날은 자국 요리와 한국 요리 하나씩을 만들어 각자의 요리 솜씨를 뽐낸 음식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고 서로간의 정도 나누었다. 여기에서 본교 유학생들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았다.

## 10월 9일 한글날, 한국 민속촌으로 문화체험 가다.

● "선생님, 한국의 가을 정말 예뻐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2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한국 민속촌으로 문화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한국어 선생님들과 함께 한 강의실 밖의 현장학습에 학생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천고마비의 가을을 만끽하고 한국전통의 주거문화와 생활 문화 및 환경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2010 세계 대학생 리더십 대회

### ●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뚫는다”

2010년 10월28일~31일(3박4일) 전북 무주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학생을 상대로 ‘2010 세계 대학생 리더십 대회’가 개최되었다. 사단법인 문화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직속 G20정상회의 준비 위원회, 녹색성장 위원회가 후원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63개국의 진취적 기상을 가진 대학생들이 참석하여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특별한 워크샵을 받았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리조트의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서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과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안의 세계’를 깊이 있게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한국’이라는 터전 위에 여러 나라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외국인 대학생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재조명해 보는 장이 되기도 했다.



### 추석맞이 한국 추석 전통문화 축제를 열다.

-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유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 주기 위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전통 음식, 전통 놀이,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의 장기자랑 및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 멘토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친구가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오리엔테이션이 속리산에서 열려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